

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11.2)

□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11월 美 FOMC 결과]

□ 지난밤 미 연준은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.

-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,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*이었습니다.

* (다우) +0.7% (S&P) +1.1% (美 국채금리) [2yr] △14.4bp [10yr] △19.7bp (달러) △0.1%

- 다만, 파월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,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[10월 수출입 동향]

□ 한편,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.

-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(+5.1%)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한 데 더해,
- 특정 지역·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.
-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다만,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,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외교 후속성과 조기 창출, 현장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[10월 물가 동향]

-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,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변동성이 큰 식료품·에너지를 제외하여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*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
 - *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(%): (22.11)4.3 (23.1)4.1 (24.0) (3)4.0 (4)4.0 (5)3.9 (6)3.5 (7)3.3 (8)3.3 (9)3.3
-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.
-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.
- ① 첫째,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,
 - 수급관리·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·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- ② 둘째,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.
 -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는 한편,
 -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·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[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]

- 우선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할인 지원,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하여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- 배추·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
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,
할인을 대폭 확대하고

- 출하계약·비축 물량 1만톤*을 집중 공급하여
소비자가격을 최대 50~60%까지 인하하겠습니다.

* 김장철 출하계약·비축물량(천톤): (배추) 2.7, (무) 1, (소금) 2.3, (건고추) 2.8, (마늘) 1.2,

- 이와 함께 식품·외식 물가 안정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.

❶ 바나나·망고, 전지·탈지분유, 버터·치즈, 코코아 등
8개 수입과일·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*를 적용하고,

* 11월 신규 할당관세 품목·물량(천톤): (바나나) 30, (망고) 1.3, (자몽) 2,
(자몽농축액) 1, (전지·탈지분유) 5, (버터) 2, (치즈) 40, (코코아) 수입전량 등

❷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(+10%p),
커피·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,
김치 등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
2025년까지 연장하여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.

[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]

-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‘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
에너지 절감 대책’을 시행하겠습니다.

❶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
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.

- 금년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*와 가스요금 할인**을
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여
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,

* (대상)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(113.5만가구) (평균단가)30.4만원

** (에너지바우처 발급가구) 34.4만원, (미발급가구) 59.2만원

-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
우편·문자 등을 통해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,
-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*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
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* (現) 대상자 직접 신청시 할인 → (改) 가스공사, 지자체 직권신청(대상자 동의 필요)

②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
40만원으로 확대(+3만원)하고,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
대상 시설에 포함하겠습니다.

③ 아울러,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
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*하고,
전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.

* 캐시백 성공기준 하향(7%→3% 이상 절감시), 지급단가 인상(최대 70원/m³→200원/m³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